

2010. 9. 20 제247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10. 9. 20 제247호

산업·경제

1. 무료 기업지원 서비스 실시 (영국 버밍엄市)

건강·복지

2. 노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 (런던)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시민 참여형으로 개편 (영국 리버풀市)
4. 빈곤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카드 발급 (독일)

행정·재정

5. 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서비스센터 개설 (영국 맨체스터市)

방재·안전

6. 녹지를 이용해 도심 홍수 예방 (런던)

도시환경

7. 시립대와 함께 녹색교육 프로그램 시행 (뉴욕)
8. 친환경적인 트랜짓센터 건립 추진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9. 버스 차량기지를 친환경 건물로 개조 (런던)
10. 환경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도시교통

11. '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런던)
12. 자전거 타기 캠페인 '스카이라이드' 행사 개최 (런던)

도시계획 · 주택

13.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 지원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일본 지노市)
-

산 업 · 경 제

1. 무료 기업지원 서비스 실시 (영국 버밍엄市)

- 영국 버밍엄市는 새로운 기업 지원서비스 ‘Stepclever’를 무료로 시행해 지역 비즈니스 활성화를 촉진할 계획임. 市는 北리버풀과 南세프톤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개 계획을 마련함.
 - 첫째, 기업 멘토링 서비스는 열정적이고 유망한 사업 아이템이 있는 기업가를 돕기 위해 사업 성공과 실패 사례를 제공하여 사업성과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 市 전담팀은 경험이 풍부한 사업가를 모집해 초보 사업가의 멘토로 활용함. 이들은 초보 사업가와 함께 사업 아이템을 기획하고 투자자와 소비자의 반응을 테스트한 후 창업을 지원함. 투자자금 확보와 기업 운영방안에 대해 조언하면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초보 사업가가 활용하게 함.
 - 둘째, 청년 기업가 프로젝트는 市 전담팀원이나 숙련된 교사가 학교를 갓 졸업했거나 실직 상태인 16~25세 청년을 대상으로 자신의 관심분야와 재능을 깨닫고 이 분야에 집중하게 도와줌. 이 프로젝트는 교육, 취업, 직업훈련, 자영업 분야에서 시행됨.
 - 자기계발 프로그램과 직업훈련 과정도 제공해 청년이 구직 인터뷰에 적절히 대응하거나 자기소개 기술을 증진하는 데 도움을 줌. 市 전담팀의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청년이 유용한 직장경험을 하거나 관심 분야에서 경험을 쌓게 함.

- 市는 이 2가지 프로젝트로 각계각층의 시민이 자신 있게 기업 활동을 하고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도록 지원함. 실제로 이 서비스는 2007년 이후 빈곤지역 갱생에 크게 기여함.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158.asp)

TV, 컴퓨터를 끄고 독서량을 늘려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 (일본 이와테縣)

- 일본 이와테縣 소재 유치원, 초등·중·고등·대학교는 공동으로 2010년 7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텔레비전, 게임기, PC를 끄고 독서하자”는 캠페인을 1주일간 실시함.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캠페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저감하고 독서를 장려하기 위함임.

- 2009년에는 전체 900개 학교 중 164개 학교 2만 2718명이 참가하였으며,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보지 않은 시간이 14만 2910시간으로 나타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5.9톤 저감한 것으로 추산됨. 2010년에는 25만 시간을 기록해 약 1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저감이 예상됨. 이번 캠페인으로 독서의 즐거움을 알게 되어 독서하는 습관이 생겼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옴.

(esd.iwate-u.ac.jp/entaku/KyodoKodo.html)

2. 노인의 사회활동 기회 확대 (런던)

○ 런던시장은 2010년 여름 시청에서 열린 노인총회에 참석해 노인이 다양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함. 市는 노인을 가장 잘 포용하는 도시라는 자부심으로 연령 평등 정책을 펼칠 계획임. 특히 市는 자원봉사, 멘토링 등 노인의 활동기회를 확대하면서 2012년 올림픽 홍보를 위한 민간대사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 목소리를 내도록 지원할 예정임.

- 노인총회는 매년 여름에 열리며 2010년 주제는 ‘가난과 복지’로 자원봉사단체 연대회의인 ‘런던 노인 전략회의’가 주도하고 市가 후원함. 민간단체와 기업, 중앙정부, 市와 자치구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함.
- 경제위기에 취약한 노인을 지원하기 위해 市는 대중교통 무임승차와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과 연료 지원 사업을 운영함. 런던개발청과 고용기술훈련위원회에서는 고용시장 악화에 따른 피해가 상대적으로 큰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재취업 교육을 계획 중임. 또한 법정 은퇴연령 제도 폐지에 발맞춰 노인이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섬. 민간기업은 이와 같은 정책을 환영하는 분위기임. 대형 슈퍼마켓인 세인즈버리社는 65세 이상 직원이 5000명 이상임.
- 런던에 살고 있는 50세 이상 인구수는 200만 명으로 런던 전체 인구의 25%에 달함. 이 중 60세 이상은 118만 4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임. 60세 이상 노인 중 혼자 살고 있는 인구수는 42만 명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26만 명이 여성임. 런던의 노인 인구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해 2031년에는 60세 이상이 18%, 65세 이상이 14%가 될 것으로 예측됨.

-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경기침체가 노인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연금 생활자의 경우 금리 하락과 물가 상승으로 연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노인 고용시장도 급격하게 위축됨. 2010년 7월 영국통계청에 따르면 런던 도심의 경우 실업수당을 신청한 50세 이상이 5.5%에서 10.8%로 전년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함. 실업기간도 청·장년층에 비해 긴 것으로 조사되어 실업으로 노인 빈곤과 소외 문제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www.london.gov.uk/priorities/health/tackling-inequality)

(www.lopsg.org.uk)

3.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시민 참여형으로 개편 (영국 리버풀市)

○ 영국 리버풀市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받는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독립 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안을 마련함. 기존 사회복지서비스의 특정 항목을 선택해야만 하는 방식이 아닌 시민 개개인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제공방식에 초점을 맞춤.

- 시민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는지,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어떤 물리적 환경을 마련해야 하는지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을 독립 조직에서 수행함. 시민은 독립 조직을 이끌 일꾼을 추천하고, 주요 사안에 대해 협의함. 이는 市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획기적인 전환을 의미함.

-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기존 12개 센터와 3개 주민복지원이 통합되어 市 전역에 '건강 및 웰빙 슈퍼센터'가 6개 정도 설치될 예정임. 이 센터에서는 각종 지역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움이 필요하지만 방치되어 있는 주민에게 집중 치료와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24시간 응급 서비스를 제공함.

· 市는 150만 파운드(약 27억 원)를 첫 번째 슈퍼센터 건립에 사용할 계획이며, 향후 추가계획안을 2011년 3월까지 마련할 예정임. 시민들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독립 기구에서 제공하는 것을 환영함.

(www.liverpool.gov.uk/news/newsdetail_2172.asp)

4. 빈곤층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카드 발급 (독일)

○ 2011년부터 독일의 실업연금 수급 대상자(절대 빈곤층으로서 한국의 기초생활 보호대상자에 해당) 가정의 자녀는 정부로부터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됨. 그동안 실업자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교육비가 지원되었지만 다른 용도로 활용되어 교육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음. 연방 노동사회부는 빈곤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충분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2010년 8월 16일 전자칩을 내장한 카드를 발급해주는 특별 교육 지원책을 발표함.

- 지원대상은 우선적으로 실업연금 수급자이면서 취업센터에 구직을 신청한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임. 지원되는 4개 분야는 급식, 보충수업, 학용품 및 기타 수업준비물, 다른 학생이 일반적으로 받는 음악레슨과 스포츠활동 참가 비용임. ‘교육카드’로 불리는 이 카드는 지원대상인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직접 발급됨.

· 해당 어린이와 청소년이 정부가 정한 4개 분야에 속하는 교육혜택 기회를 선택하여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임. 재원은 국가 예산으로 마련되며 연방 노동사회부는 연간 5억 유로(약 7527억 원)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함.

· 이 사업은 2011년 1월 독일의 몇 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될 예정임. 우선적으로 실업연금 수급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카드를 발급하지만 향후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 전반에 확대할 계획임. 이 경우 자금 조달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연방 노동사회부는 민간재단과 기업에 협조를 요청 중임.

- 새로운 교육비 지원정책에서 혁신적인 점은 해당 가정에 교육비를 현

금으로 지원해주는 방식보다 훨씬 실질적이고 안전하게 교육 분야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임. 부모가 자녀 교육비 운용에 아무런 권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빈곤 가정의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육혜택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www.bmas.de/portal/47378/2010_08_16_card.html)

2010년도 기반기술 산업 지원대상자 선정 (도쿄)

- 도쿄都는 2008년부터 都 중소기업진흥공사와 협력하여 ‘기반기술 산업 지원 사업’을 실시함. 이는 3개 중소기업 이상으로 구성된 공동사업자를 발주 및 기술개발 측면에서 지원하는 사업임. 지금까지 60개 회사가 지원받았으며 시 제품 개발이나 전시회 출품, 판매망 확보 등의 성과가 나오고 있음.
- 2010년에는 28개 그룹 94개 회사가 응모해 9개 그룹 28개 회사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 선정된 그룹은 최대 5000만 엔(약 6억 8000만 원)을 지원 받으며 경영 전문가로부터 공동사업 진행 관리나 운영에 대해 도움을 받음.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10/09/20k300.htm)

행정 · 재정

5. 통합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서비스센터 개설 (영국 맨체스터市)

○ 최신식 시설을 갖춘 시민서비스센터가 영국 맨체스터市에 건립되어 시민에게 다양한 시정서비스를 제공함. 이 센터의 건립으로 市 여러 부서에서 제공하던 서비스가 한 곳에 모여 시민이 쉽고 빠르게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

- 업무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5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주택수당(주거보조비) 및 재산세, 도시계획과 건축 규제, 일상 민원 상담, 노숙자 갱생 서비스, 면허 허가와 갱신(주류 판매, 택시 운전 등)과 같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함.

· 직접 방문하는 시민을 위해 현대식으로 꾸며진 대기실, 유아 놀이실, 기저귀 교환대, 도서관, 카페가 설치됨.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통화나 온라인으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市는 “방문이나 클릭, 전화 한 번에 질 높은 시정 서비스를 제공하자”란 슬로건을 내걸고 ‘시민서비스 자문국’ 주도로 시민서비스 개선사업을 펼침. 이의 일환으로 시청과 중앙도서관을 확장해 시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첨단 공간으로 탈바꿈할 계획임.

(www.manchester.gov.uk/info/100004/your_council/4720/changes_to_your_council_services?)

방 재 · 안 전

6. 녹지를 이용해 도심 홍수 예방 (런던)

- 런던시는 녹지공간이 홍수 예방에 기여한다고 발표함. 시 외곽지역 공원 녹지가 도심의 홍수위험을 줄이고 있다고 밝힘. 시 환경위원회는 건물 10만 호가 강의 범람에 의한 홍수 위험에 처해 있고 68만 호가 지표수로 인한 홍수 위험에 처해 있어 기존 녹지공간을 홍수 예방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시는 런던 외곽지역의 모든 자치구에는 공원과 녹지, 놀이공간이 다수 있어 홍수 예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수로를 건설하는 것보다 비용 대비 효과가 크고 자연친화적이라고 밝힘. 녹지공간을 이용하여 홍수를 예방한 성공적인 사례로 수트클리프 공원(사진 참조)과 쾌기江, 코밀 정원을 제시함.



- 市는 홍수 예방을 위해 2003년 그리니치에 수트클리프 공원을 조성함. 수로를 건설하지 않고 퀘기江을 복원해 홍수 예방용 저수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둠. 보통 때에는 공원을 지역주민의 레저와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게 함.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london%E2%80%99s-green-spaces-could-help-reduce-flooding-risk-assembly-)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해 일반 시민으로 ‘재해대응팀’ 구성 (뉴욕)

- 뉴욕市는 허리케인이나 해양성 폭풍우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함. 이 중 ‘CERT’(City Emergency Response Team)는 시민 스스로가 10주 훈련을 받고 응급처치, 교통 통제, 화재 예방, 재해대응 교육 활동을 펼침. 도시에서 발생하는 자연재해는 지역 주민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市의 사후 지원보다 효과적임.
- 일종의 재해대응팀인 CERT에 참여하려면 만 19세 이상 주민으로 市 재난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주지를 중심으로 팀을 구성하게 됨. 10주 훈련에는 소방 교육, 인명구조, 테러대응법이 포함됨.

(http://nyc.gov/html/oem/html/get_prepared/cert_training.shtml)

도 시 환 경

7. 시립대와 함께 녹색교육 프로그램 시행 (뉴욕)

○ 뉴욕시는 뉴욕시립대학교(CUNY)와 공동으로 녹색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함. 이 교육프로그램은 지속가능성과 환경 문제를 다루거나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함. 교육 내용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기초적인 사항, 실무에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 변화하는 환경 분야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임.

- 운영 프로그램은 학위 취득 과정, 지속가능성 과정, 그린 트레이닝 프로그램(Green Training Program)의 3개 과정으로 구성됨. 이 중 그린 트레이닝 프로그램은 건축, 태양에너지 기술, 부동산과 토목, 생활 방식 분야로 나뉘며 뉴욕시립대와 지역대학에서 커리큘럼을 제공함.

· 시립대는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속가능성 및 에너지 분야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시와 자치구, 대학과 협력관계를 맺음.

- 시는 녹색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면서 전문지식을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부동산 연구소, 교육협력 센터, 지속가능한 에너지 센터, 수자원과 환경 연구소, 환경과학 센터, 컴퓨터공학과 응용수학 센터, 인간환경 센터, 환경과 근로건강 센터, 커뮤니티 개발과 계획 센터를 운영해 통합적인 연구기반을 제공함.

(www.cuny.edu/academics/conted/green.html)

8. 친환경적인 트랜짓센터 건립 추진 (미국 샌프란시스코市)

- 미국 샌프란시스코市의 복합 예술공간과 교통허브 역할을 하게 될 트랜스베이 트랜짓센터 건립공사가 2010년 8월 시작됨. 2017년 완공 예정인 이 센터는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로서 11개 대중교통시스템으로 도심과 베이 지역을 연결함. 이 센터는 미국에서 처음 생기는 캘리포니아 고속철도역이 됨.
 - 지속가능성과 접근성이 뛰어난 이 빌딩은 트랜스베이 터미널 부지에 위치하며 주변지역 개발도 추진될 예정임. 센터 설계는 우아함, 빛, 환영, 안전을 콘셉트로 하고 강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함. 또한 대중교통 이용자와 일반시민 모두의 편의를 위해 설계함. 미션街 광장이 트랜짓센터의 주출입구가 되고 외부 유리벽은 꽃잎이 물결치는 모양으로 콘크리트 철골구조와 잘 어울리도록 만듦.
 - 트랜짓센터는 친환경 빌딩으로 지속가능한 디자인 전략을 적용함.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원인데 나무나 물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걸러냄. 옥상공원은 산책로, 운동공간, 카페, 공연장, 각각 다른 식물로 꾸며진 12개 정원으로 구성됨. 약 305m 길이의 물기둥을 쏘아올릴 수 있는 분수대를 만들고 인접한 빌딩과 공원을 연결하는 다리를 설치함.
 - 지하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열 교환시스템 설비를 설치하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자연 환기와 자연 조명을 활용함. 한 예로 그랜드 홀 꼭대기에 돔 형태의 채광창을 설치해 실내로 빛이 충분히 들어오게 함. 또한 빗물 재활용시스템으로 연간 920만 갤런의 물을 절약함.



(www.pnewsire.com/news-releases/construction-begins-for-transbay-transit-center-100475249.html)

9. 버스 차량기지를 친환경 건물로 개조 (런던)

- 런던시는 최근 버스 차량기지를 친환경 건물로 개조해 최근 문을 열. 이번 개조사업은 교통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바꾼다고 하면 버스, 승용차 등 교통수단에만 주목했던 기존 시각에서 탈피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음. 새롭게 문을 연 차량기지는 영국 최대 규모이며, 친환경성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임. 웨스트 햄 지역에 있는 이 차량기지는 풍력발전 설비를 갖췄으며 버스 320대를 수용할 수 있음. 버스는 런던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대중교통수단임.

- 차량기지 곳곳에 일반쓰레기뿐 아니라 산업쓰레기도 재활용하기 쉽도록 재활용품 수집시설을 설치함. 에너지 이용효율도 높아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기존 차량기지에 비해 27% 정도 줄 것으로 예상됨. 돌나물과(科) 식물을 심어 조성한 ‘살아 있는 지붕’은 건물온도 조절과 에너지 효율 증대, 동물 서식처와 식물 균락처 제공 효과를 가져다줌.
- 빗물 저장시설도 갖춰 지붕에서 수집한 빗물을 차량기지 내 화장실에서 재생수로 이용함. 에어컨과 같은 냉방장치를 별도로 가동하기보다 자연통풍 기능을 높여 에너지 이용수요를 최대한 줄임. 바이오매스와 화석연료를 함께 사용하는 보일러를 설치해 화석연료 사용량도 줄임. 자연 채광을 실내조명으로 최대한 활용하는 건물로 설계한 점도 돋보임. 100kW 용량의 풍력발전기는 차량기지 내부 에너지 이용량의 10%를 담당함. 풍력발전으로 생산된 전력 중 잔여전력은 국가 에너지 네트워크에 판매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함.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6276.aspx)

10. 환경 관련 통합정보를 제공하는 포털사이트 개설 (베를린)

- 베를린市에서는 자연과 환경을 주제로 전시회, 답사, 상담 등 다양한 행사와 활동이 펼쳐짐.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취합해서 시민에게 제공하는 장(場)이 없어 자기에게 적합한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쉽지 않음. 베를린市와 자연보호협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 단체, 공간, 행사 정보를 제공해주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베를린 환경달력’(www.umweltkalender-berlin.de)을 개설함.

- 이 포털사이트는 조류 서식지 탐방, 자전거 여행, 풍경사진 촬영 워크

숲, 야생 체험. 에너지 이용 상담 등 베를린과 근교에서 진행되는 자연과 환경 관련 행사와 활동 내용 및 일정을 관광 사이트처럼 안내함. 환경교육 효과가 있는 어린이 생일파티 이벤트와 같은 아이디어도 제공함.

- 일반적인 관광 포털사이트와 유사하게 디자인해 일반 시민이 친숙하게 이용하도록 함. ① 주제(동·식물, 환경 보호, 건강한 생활), ② 행사방식(답사, 강연회, 회의, 교육, 전시회, 연극 및 영화, 방송, 축제, 장날, 상담), ③ 날짜, ④ 위치, ⑤ 장애유형(휠체어 이용자, 시각 및 청각 장애인 여부)별로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음. 행사 주요 내용과 함께 지도정보와 대중교통 정보도 제공됨.
- 市는 이 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자연과 환경 관련 행사와 활동을 안내하는 포괄적인 정보망을 구축하게 되었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함. 환경보호 기관과 단체도 회원과 방문객을 늘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봄.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

11. '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런던)

- 런던市는 2011년을 '걷기의 해'로 정하고 대규모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함. 이와 관련해 市의회는 그저 걷기 편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서 나아가 시민이 걷기를 즐기게 독려하는 적극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市의회 교통위원회는 걷기 좋은 도시 만들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할 때 시설, 이벤트 위주의 정책목표 달성보다는 실질적으로 걷기에 참여하는 정도와 걷기의 즐거움이 시민생활 속에 녹아 들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힘.
 - 런던 시민은 전체 이동시간의 1/3을 걷기에 사용하고 있음. 市 교통전략에 따르면 걷기를 더욱 권장해 걷기의 비율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이를 위해 市와 런던교통공사는 ① 인도(人道)를 서로 연결하고 확충하는 '더 걷기 좋은 도시 조성' 사업, ② 공원, 하천변, 수로변을 정비하고 확충하여 걷기 즐거운 공간을 만드는 '더 걷기 좋은 녹지와 수변 공간 조성' 사업, ③ '걷기의 해'인 2011년에 대대적인 걷기 홍보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임.
 - 이번 市의회의 정책 평가는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완해야 할 정책방향과 내용을 사전에 조사하여 수정하게 한다는 데 목표를 둬. 특히 시설 조성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생활양식을 걷기 중심으로 바뀌어가는지 조사할 계획임.
 - 市의회는 도심과 부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걷기 좋은 도

시 만들기 사업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市의회 조사결과는 2010년 가을에 발표되며 일반 시민도 ‘걷기’ 홈페이지 (www.london.gov.uk/walking)에서 정보를 얻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london_assembly/are-plans-get-londoners-walking-right-track)

12. 자전거 타기 캠페인 ‘스카이라이드’ 행사 개최 (런던)

- 런던市는 최근 시민 8만 50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자전거 타기 캠페인 ‘스카이라이드’(SkyRide) 행사를 개최함. 자전거 타기를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여름 시민과 연예인, 스포츠 스타가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도심 거리에서 하루 동안 자전거를 탐. 2010년 행사에는 시장(市長)은 물론 올림픽 금메달 수상자, 모델, 배우가 대거 참가함.
 - 이번 행사는 市가 정한 ‘자전거 타기의 해’ 행사와 연계되어 실시됨. 이날 참가자는 새롭게 조성된 15km 길이의 도심 자전거도로를 이용하면서 음악, 게임, 퍼레이드 등 다양한 활동을 체험함. 이 도로는 런던 타워, 버킹엄 궁전, 세인트폴 성당, 국회의사당 등 랜드마크 건물을 따라 조성됨.
 - 市는 자전거 타기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레저활동과 연계해 자전거 타기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 형식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함. 행사에 참가한 시장은 런던을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자전거 혁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더 많은 시민이 자전거

타기에 동참할 것을 호소함.

- 市는 행사 개최 전에 자전거도로 노선을 홈페이지에 올려 시민이 참고하게 함. 행사장에는 3D 자전거극장과 무료 식수공급소가 설치되고 원하는 시민은 영국 자전거협회 소속 전문가로부터 자전거 안전 이용에 관한 상세한 지도를 받음.

(www.london.gov.uk/media/press_releases_mayoral/cyclists-be-given-freedom-capital-mayor-londons-sky-ride)

전자정부 성취도대회 개최 (미국)

- 미국 연방정부는 ‘전자정부 성취도대회’를 매년 개최함. 연방정부는 온라인 민원에 적극 대응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증진하기 위해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개선하거나 새롭게 구축하는 것을 장려함. 이를 촉진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정부기관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전자정부 성취도대회를 열어 우수 기관에 시상함. 심사는 전자정부센터가 담당함.
- 2010년 대회에서는 市정부 부문에서 보스턴市, 州정부 부문에서 캘리포니아州, 카운티 부문에서 체스터필드(Chesterfield) 카운티가 1위를 차지함. 연방정부는 미국 전역에 있는 정부기관이 공공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전자정부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평가함.

(www.centerdigitalgov.com/survey/88)

도시계획·주택

13.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지원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일본 지노市)

- 일본 나가노縣 지노市는 민간이 주도하고 행정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 중임. 이 사업은 지역복지, 생활환경, 어린이·가정 지원 등 3개 중점과제로 구성됨. 중점과제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는 시민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의견을 수렴해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함.
 - 첫째, 지역복지 사업은 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역이 되어 함께 살아가는 마을, ②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마을, ③ 교류하면서 배우고 서로 버팀목이 되어 주는 마을, ④ 모든 사람이 쾌적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마을, ⑤ 모든 사람이 정신적·사회적으로 자립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각각의 존재를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마을을 만드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함. 이를 위해 보건, 의료, 복지 전문가와 지역사회가 일체가 되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둘째, 생활환경 사업은 시민과 함께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함. 지역 재활용 자원 스테이션 설립, 환경미화 활동 추진, 환경교육 실시, 도시 환경축제 개최 등의 사업을 실시함.
 - 셋째, 어린이·가정 지원사업은 지역사회가 합심하여 아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길러보자는 것을 목표로 함. 태아에서부터 18세가 될 때까지 교육과 보건·복지가 일체가 된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제공받아 평

생각습이 가능한 지역으로 만들고자 함. 주요 사업으로 육아가정 네트워킹을 만들어 정보 교환과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하고 시민 참여를 지원함.

(www.city.chino.lg.jp/ctg/01060063/01060063.html)